

## 대학생의 생물학적 성과 성역할 정체감의 일치여부에 따른 진로태도성숙과 진로결정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이 기 학<sup>†</sup>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생물학적 성과 성역할정체감의 일치여부가 진로태도성숙과 진로결정장애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는 서울시내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대학생 373명 (남학생: 128명, 여학생: 245명)이었다. 남녀차이를 보인 변인은 진로태도성숙수준에서는 준비성, 독립성 차원과 진로결정장애요인에서는 직업정보부족, 필요성인식부족에서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보였다. 성역할정체감의 차이를 보인 변인은 진로태도성숙수준에서는 진로태도충점,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차원과 진로결정장애요인에서는 진로결정장애요인충점, 우유부단한 성격요인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생물학적 성 특성과 성역할정체감의 일치여부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수준과 진로결정장애요인의 차이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진로태도충점과 독립성 차원을 제외한 4개 하위요인-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에서 일치집단이 불일치집단보다 높은 성숙점수를 보였으며, 진로결정장애요인에서는 진로결정장애요인충점과 외적장애를 제외한 4개 하위요인-직업정보부족, 자기명확성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인식부족-에서 불일치집단이 일치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성변인에 대한 효과를 알아본 기존의 연구결과들의 불일치를 보이는 원인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생물학적 성 특성과 성역할정체감의 일치여부를 고려해야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주요어 : 진로태도성숙, 진로결정장애요인, 성일치

이기학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 근무하고 있음.

\* 본 연구는 학술진흥재단 신진교수연구지원비에 의해 지원됨.

† 교신저자 : 이 기 학,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전화 : 02-2123-2445 E-mail : khlee2445@yonsei.ac.kr

진로상담의 목적은 내담자의 자아정체감을 확인하여 자신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고 상담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Gati, Krausz, & Osipow, 1996). 이러한 진로상담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개인적 그리고 심리적 특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진로상담의 초기면접에서는 내담자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내담자의 진로와 관련된 특성을 평가하는 진로평가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내담자의 진로와 관련된 동기 수준과 진로선택에 어려움을 보이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이기학, 2001). 이와 같이 내담자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진로상담이 가능해질 수 있다.

대학신입생 또는 재학생들이 앞으로의 대학생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꼽는 걱정거리로 학업과 진로문제를 들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로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광희, 양은주, 최송미, 2001). 특히, 진로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대학생들 중에는 이미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진로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다고 보고한 학생들의 상당수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현상은 자신이 진로가 결정되었다고 믿고 있거나 이상적인 결정을 한 경우가 매우 많음을 시사해주는 것으로(D'ziuban, Tango, & Hynes, 1994),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진로결정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적 특성과 현실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로선택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개인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성 변인과 흥미 변인, 그리고 사회적 변인으로는 사회적 위신을 들 수 있다(Gati, Houminer, & Aviram, 1998; Hesketh, Elmslie, & Kaldor, 1990;

Leong, 1993). 사람들은 전생애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특히, 최초로 직업 세계에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해 많은 준비를 통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로의사결정은 개인이 원하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정영희, 2002). 자신이 원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진로 사이에서 그 격차가 가장 적은 최선의 것을 선택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다(Gati, 1993). 이런 과정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생물학적 성과 성역할 정체감의 차이에 대한 것이다(Burnett, Anderson, & Heppner, 1995). Gottfredson(1981)은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성유형이 제일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였다. 즉, 개인이 미래의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직업의 성유형과 자신의 생물학적 성 특성 및 성역할 정형화 특성이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생물학적 성 특성과 성역할정형화 특성의 일치성 여부가 진로선택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이며, 두 변인의 일치 정도가 개인의 진로태도 발달 및 진로선택의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진로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생물학적인 성 특성과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에 들어서 직업심리학분야에서의 성 변인에 대한 연구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연구결과들은 여성의 진로발달이 남성의 진로발달과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자 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어(Hackett & Lonborg, 1993), 진로선택과정 및 진로선택의 장애요인에

있어서의 성차이에 따른 효과를 간과한 경향성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전통적인 성특성 고정관념에 기초한 성역할 지배적인 직업의 구조가 변화하면서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학 분야에서의 성 변인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뿐 만 아니라(장희숙, 1999; 조아미, 2000; Gati, Krausz, & Osipow, 1996; Gysbers, Heppner, & Johnston, 1998; Peterson, 1993) 기존의 연구 경향성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진로발달과정 및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대부분 남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제시함으로써(조아미, 2000; Gati, Osipow, & Givon, 1995; Luzzo, 1995), 진로상담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Burns, 1994). 또한 Hackett와 Lonberg(1993)는 진로상담가들은 내담자들에게 효율적인 진로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담자의 성 특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민감성은 진로상담과정에서 진로상담자가 내담자가 자신의 삶에서 이미 형성해 오고 유지해왔던 성차이와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또한 내포하고 있다(Brown & Brooks, 1991).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진로발달 및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성차이를 알아본 대부분의 연구들은 다음의 두 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진로태도성숙 수준과 진로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에서의 남녀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일관성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이기학, 1997; 조아미, 2000; Luzzo, 1995). 둘째, 진로태도성숙 수준과 진로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에서의 성차이에 대한 연구들이 생물학적 성차이와 성역할정체감의 차이를 동시에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태도성숙 수준과 진로결정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을 성차이와 성역할정체감을 동시에 고려하여 두 변인간의 일치 여부에 따른 차이를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진로상담에서 단순히 내담자의 성 특성에 따른 차이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성 변인을 모두 포함하는 비성적인(sex-fair) 포괄적인 진로상담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방 법

### 조사대상자

우리나라 대학생의 성과 성역할정체감의 일치 여부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수준과 진로결정요인 및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 시내에 소재한 Y대학교의 373명의 대학생들이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128명(34.3%)이고 여학생이 245명(65.7%)이며, 학년별 분포는 1학년 76명(20.4%), 2학년 144명(38.6%), 3학년 69명(18.5%), 그리고 4학년 84명(22.5%)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373명 중 245명(65.7%)은 계열별로 입학한 학생이며 123명(34.3%)은 과별로 입학한 학생이다. 이들의 연령 분포는 18-31세이며, 평균 연령은 21.17세(표준편차 2.31세)이다.

### 조사도구

#### 성역할정체감 측정도구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성역할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정진경(1990)이 개발한 한국성역할검

사를 사용하였다. 한국성역할검사는 Bem의 양성성 이론에 근거하여 우리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초하여 제작된 검사이다(정영희, 2002). Spence와 Helmreich(1978)에 의하면, 남성성은 경쟁적이고 독립적이며 활동적인 특성으로 묘사되며, 여성성은 정서적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특성으로 묘사되고 있다. 한국성역할검사는 7점 척도로 구성된 남성성 특성을 나타내는 문항 20개, 여성성 특성을 나타내는 문항 20개와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는 문항 20개로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요인에 대해 점수가 높을수록 그 성역할 특성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다. 내적일관성 신뢰도계수는 남성성 .91, 여성성 .84, 그리고 사회적 바람직성 .75이다(정진경, 1990). 한편,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영희(2002)의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 신뢰도계수는 남성성 .91 그리고 여성성 .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에게 실시한 내적일관성 신뢰도계수는 전체적으로 .85, 남성성 .88, 그리고 여성성 .86으로 나타났다.

#### 진로태도성숙 측정도구

본 연구조사대상자의 진로태도성숙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진로태도성숙도검사(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 CAMI, 이기학, 1997)를 사용하였다. 진로태도성숙도검사는 청소년들의 진로선택과정에서의 태도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검사로 결정성(10문항), 목적성(8문항), 확신성(10문항), 준비성(10문항), 그리고 독립성(9문항)의 5개 하위 요인의 총 47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와 각 하위 차원에 대해 높은 성숙 수준을 갖고 있는 것이다. 각각의 하위 요인의 내적일관성 신뢰도계수는 .88, .75, .75, .76, 그리고 .75이다. 진로태도성숙도검사는 문화적인 차이에 영향을 받지 않

는 범문화적인 측정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Lee, 2001).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 신뢰도계수는 각각 .90, .83, .81, .76, 그리고 .76이며, 검사 전체의 내적일관성 신뢰도계수는 .87이다.

#### 진로결정장애요인 측정도구

본 연구조사대상자들의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진로미결정검사(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K-CII, Tak & Lee, 2003, in press)를 사용하였다. K-CII는 대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어려움을 보이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검사로서 5점 척도의 5개의 하위 요인의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 하위 요인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원인이 충분한 직업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서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직업정보 부족 요인(6문항), 자기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어떤 진로를 결정해야 할 지를 모르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자기명확성부족 요인(4문항), 개인적인 성격 특성에 기인하여 진로선택의 어려움을 보이는 정도를 측정하는 우유부단한 성격 요인(4문항), 아직까지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로선택을 하지 못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필요성인식부족 요인(4문항), 그리고 부모나 주변사람의 기대와의 갈등 혹은 사회적인 요구조건과의 불일치 때문에 진로선택에 어려움을 보이는 정도를 측정하는 외적장애 요인(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그 요인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K-CII의 내적일관성 신뢰도계수는 각각 .85, .89, .78, .74, .66이며, 2주부터 5주 간격으로 측정된 검사재검사 신뢰도계수는 각각 .40-.86, .41-.90, .56-.85, .21-.92,

.29-.81로 나타났다(Tak & Lee, 2003, in press). 본 연구에서의 하위 요인의 내적일관성 신뢰도계수는 직업정보부족 요인 .85, 자기명확성부족 요인 .88, 우유부단한 성격 요인 .79, 필요성인식부족 요인 .80 그리고 외적장애 요인 .69이며, K-CII의 내적일관성 신뢰도계수는 .89로 나타났다.

###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생물학적 성과 학습된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수준과 진로결정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진로태도성숙점수와 진로결정장애요인점수를 2수준의 성 변인(남성 대 여성) \* 4수준의 성역할정체감 변인(남성성 대 여성성 대 양성성 대 미분화)에 의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생물학적 성과 성역할정체감의 일치여부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수준과 진로결정장애요인을 알아보았다.

우선 성역할정체감 유형을 남성성과 여성성 집단을 중앙치 분리법을 사용하여 구분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남성성 점수는 44-135점의 점수분포(평균 = 88.41, 표준편차 = 15.11)를 보이고 있으며 중앙치가 88점이며, 여성성 점수는 48-127의 점수분포(평균 = 92.56, 표준편차 = 13.92)를 보이고 있으며 중앙치가 93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성 집단은 남성성 점수가 중앙치 88점 이상이며 여성성 점수가 92점 이하인 집단(94명)이며 여성성 집단은 여성성 점수가 93점 이상이며 남성성 점수가 87점 이하인 집단(86명)이며 양성성 집단은 남성성 점수가 88점 이상이며 여성성 점수가 93점 이상인 집단(103명)이며 미분화 집단은 남성성 점수가 87점 이하이며 여성성 점수가 92점 이하인 집단(90명)이다.

성 변인과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의한 진로태도성숙점수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본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진로태도성숙총점에 대해서는 성역할 정체감의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F(3, 365)=39.00, p<.01$ ), 성 변인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성 변인에 대한 주효과는 준비성 차원( $F(3, 365)=93.24, p<.001$ )과 독립성 차원( $F(3, 365)=12.80,$

표 1.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점수

	남성성(N=94)	여성성(N=86)	양성성(N=103)	미분화(N=90)	전체	F
결정성	3.14(.77)	3.16(.75)	3.37(.77)a	2.91(.80)a	3.15(.79)	5.67***
목적성	3.25(.60)	3.25(.56)	3.37(.59)	3.18(.67)	3.27(.61)	n.s.
확신성	3.39(.46)abc	3.12(.59)ad	3.60(.47)bde	3.01(.52)ce	3.29(.56)	26.63***
준비성	3.92(.46)a	3.91(.46)b	4.00(.43)c	3.68(.49)abc	3.88(.47)	8.46***
독립성	3.79(.46)a	3.61(.42)	3.74(.52)	3.58(.51)a	3.68(.49)	4.19**
진로태도총점	3.50(.31)a	3.41(.32)bc	3.62(.32)bd	3.27(.32)acd	3.46(.34)	20.79***

주. ( ) 안은 표준편차

각각의 열에서의 동일한 영문자는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나타냄.

\*\*  $p<.01$  \*\*\*  $p<.001$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역할 정체감의 주효과는 결정성 차원( $F(3, 365)=9.77, p < .05$ ), 확신성 차원( $F(3, 365)=19.12, p < .05$ ), 준비성 차원( $F(3, 365)=60.26, p < .01$ )과 독립성 차원( $F(3, 365)=11.12,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태도성숙점수에서 성역할정체감의 주효과가 나타난 바,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에서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였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Scheffé 사후검증을 한 표 1에 의하면, 진로태도성숙총점은 미분화에 비해 나머지 3집단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또한 양성성이 여성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결정성 차원은 양성성이 미분

화보다 높았으며, 독립성 차원은 남성성이 미분화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확신성 차원은 양성성이 나머지 3유형보다, 남성성이 여성성과 미분화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준비성 차원은 미분화보다 나머지 3유형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성변인과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상호작용효과는 모든 하위 요인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남녀에 따라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점수를 알아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었다. 표 2에 의하면, 남자 집단의 경우에는 진로태도성숙총점( $F(3, 124)=7.01, p < .001$ ), 확신성 차원( $F(3, 124)=$

표 2. 성별로 본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진로태도성숙점수

	남 자 (N=128)					F	여 자 (N=245)					F
	남성성 (N=32)	여성성 (N=25)	양성성 (N=46)	미분화 (N=25)	전체		남성성 (N=62)	여성성 (N=61)	양성성 (N=57)	미분화 (N=65)	전체	
1	3.30 (.79)	3.17 (.69)	3.37 (.76)	2.94 (.85)	3.29 (.78)	n.s.	3.04 (.74)	3.16 (.78)	3.36a (.78)	2.89a (.79)	3.10 (.79)	3.86*
2	3.37 (.69)	3.18 (.62)	3.26 (.62)	3.27 (.74)	3.27 (.65)	n.s.	3.17 (.54)	3.27 (.54)	3.46a (.55)	3.15a (.69)	3.26 (.58)	3.66*
3	3.37a (.52)	3.14b (.61)	3.73abc (.46)	3.11c (.50)	3.40 (.57)	10.93***	3.40ab (.44)	3.11ac (.59)	3.49cd (.44)	2.98bd (.52)	3.24 (.54)	13.90***
4	3.79 (.49)	3.74 (.53)	3.92a (.46)	3.53a (.46)	3.78 (.56)	3.52*	3.98 (.44)	3.98 (.41)	4.07 (.40)	3.73 (.49)	3.94 (.45)	6.70***
5	3.92 (.48)	3.69 (.35)	3.78 (.55)	3.63 (.53)	3.77 (.50)	n.s.	3.72 (.44)	3.58 (.45)	3.70 (.50)	3.56 (.51)	3.64 (.48)	n.s.
6	3.55a (.35)	3.39b (.25)	3.62bc (.33)	3.29ac (.33)	3.49 (.34)	7.01***	3.47a (.29)	3.42bc (.35)	3.62bd (.32)	3.26acd (.32)	3.44 (.34)	13.30***

주. ( ) 안은 표준편차

1: 결정성, 2: 목적성, 3: 확신성, 4: 준비성, 5: 독립성, 6: 진로태도성숙총점

각각의 열에서의 동일한 영문자는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나타냄.

\*  $p < .05$  \*\*\*  $p < .001$

10.93,  $p < .001$ )과 준비성 차원( $F(3, 124) = 3.52,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이러한 차이가 어느 집단에서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증을 한 결과를 보면, 진로태도성숙총점은 남성성이 미분화보다, 양성성이 여성성보다, 양성성이 미분화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확신성 차원은 양성성이 남성성보다, 양성성이 여성성보다, 양성성이 미분화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준비성 차원은 양성성이 미분화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여자 집단의 경우에는 진로태도성숙총점( $F(3, 244) = 13.30, p < .001$ ), 결정성 차원( $F(3, 244) = 3.86, p < .05$ ), 목적성 차원( $F(3, 244) = 13.90, p < .001$ ), 준비성 차원( $F(3, 244) = 6.70,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이러한 차이가 어느 집단에서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증을 한 결과를 보면, 진로태도성숙총점에서는 남성성이 미분화보다, 양성성이 여성성보다, 여성성이 미분화보다, 그리고 양성성이 미분화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결정성 차원과 목적성 차원에서는 양성성이 미분화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확신성 차원에서는 남성성이 여성성보다, 남성성이 미분화보다, 양성성이 여성성보다, 양성성이 미분화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성 변인과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의한 진로결정장애요인점수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본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진로결정장애요인총점에 대해서는 성역할 정체감의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F(3, 365) = 12.30, p < .05$ ), 성변인에 의한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성 변인에 대한 주효과는 모든 하위 차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직업정보부족( $F(3, 365) = 7.13, p < .10$ )과 필요성부족( $F(3, 365) = 8.18, p < .10$ )에서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정체감의 주효과는 하위 요인 중에 우유부단한 성격( $F(3, 365) = 26.68,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났으며, 자기명확성부족( $F(3,$

표 3.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결정장애요인 점수

	남성성 (N=94)	여성성 (N=86)	양성성 (N=103)	미분화 (N=90)	전체	F
직업정보부족	2.84(.77)	2.96(.75)	2.68(.88)	2.98(.80)	2.86(.81)	2.81*
자기명확성부족	2.59(.86)	2.77(.85)a	2.37(.95)ab	2.86(.94)b	2.64(.92)	5.73***
우유부단성격	2.59(.79)abc	3.15(.80)ad	2.77(.71)bde	3.05(.80)ce	2.74(.85)	26.19***
필요성인식부족	1.96(.79)	1.85(.61)	1.82(.70)	2.05(.73)	1.92(.72)	n.s.
외적장애	1.82(.70)	1.89(.63)	1.82(.61)	1.91(.66)	1.86(.65)	n.s.
진로장애총점	2.40(.56)	2.56(.50)a	2.24(.53)ab	2.61(.58)b	2.44(.56)	9.41***

주. ( ) 안은 표준편차

각각의 열에서의 동일한 영문자는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나타냄.

\*  $p < .05$  \*\*\*  $p < .001$

표 4. 성별로 본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진로결정장애요인점수

	남 자 (N=128)					F	여 자 (N=245)					F
	남성성 (N=32)	여성성 (N=25)	양성성 (N=46)	미분화 (N=25)	전체		남성성 (N=62)	여성성 (N=61)	양성성 (N=57)	미분화 (N=65)	전체	
1	2.62 (.80)	2.97a (.59)	2.39a (.89)	2.74 (.67)	2.63 (.80)	3.20*	2.96 (.73)	2.96 (.81)	2.92 (.81)	3.07 (.83)	2.98 (.79)	n.s.
2	2.53 (.85)	2.83 (.80)	2.19 (.98)	2.79 (.96)	2.52 (.94)	3.69*	2.63 (.83)	2.75 (.88)	2.51 (.91)	2.89 (.93)	2.70 (.90)	n.s.
3	2.59a (.71)	3.20ab (.53)	2.12bc (.77)	2.95c (.83)	2.61 (.83)	14.26***	2.59ab (.84)	3.12ac (.89)	2.40cd (.64)	3.09bd (.79)	2.81 (.85)	12.28***
4	2.01 (.76)	2.00 (.59)	2.03 (.77)	2.16 (.72)	2.04 (.72)	n.s.	1.93 (.82)	1.78 (.62)	1.64 (.59)	2.01 (.73)	1.85 (.71)	3.34*
5	1.85 (.61)	1.90 (.58)	1.84 (.49)	2.06 (.66)	1.90 (.58)	n.s.	1.81 (.75)	1.89 (.65)	1.80 (.69)	1.86 (.66)	1.84 (.69)	n.s.
6	2.35 (.56)	2.61a (.43)	2.14ab (.61)	2.56b (.51)	2.37 (.57)	5.38**	2.44 (.56)	2.54 (.53)	2.31a (.44)	2.63a (.60)	2.49 (.55)	3.30**

주. ( ) 안은 표준편차

1: 직업정보부족, 2: 자기명확성부족, 3: 우유부단한 성격, 4: 필요성인식부족, 5: 외적장애,  
6: 진로결정장애요인총점

각각의 열에서의 동일한 영문자는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나타냄.

\*  $p < .05$ , \*\*  $p < .01$ , \*\*\*  $p < .001$

365)=7.63,  $p < .10$ )에서도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보였다. 성역할 정체감의 주효과의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의 표 3에 의하면, 진로결정장애요인총점과 자기명확성부족에서는 여성성과 미분화가 양성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우유부단한 성격에서는 여성성과 미분화가 양성성보다, 그리고 남성성보다 나머지 3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성 변인과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상호작용효과는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남녀에 따라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결정장애요인 점수를 알아본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었다. 표

4에 의하면, 남자 집단의 경우에는 진로결정장애요인총점( $F(3, 124)=5.38, p < .01$ ), 직업정보부족( $F(3, 124)=3.20, p < .05$ ), 자기명확성부족( $F(3, 124)=3.69, p < .05$ )과 우유부단한 성격( $F(3, 124)=14.26,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이러한 차이가 어느 집단에서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증을 한 결과를 보면, 진로결정장애요인총점에서는 여성성과 미분화가 양성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직업정보부족에서는 여성성이 양성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우유부단한 성격에서는 여성성이 남성성과 양성성보다, 그리고 미분화가 양성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여성 집단의



경우에는 진로결정장애요인 총점( $F(3, 244)=3.30, p<.01$ ), 우유부단한 성격( $F(3, 244)=12.28, p<.001$ )과 필요성인식부족( $F(3, 244)=3.34, p<.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가 어느 집단에서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증을 한 결과를 보면, 진로결정장애요인총점에서는 미분화가 양성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우유부단한 성격에서는 여성성과 미분화가 남성성과 여성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성 변인과 성역할정체감 유형 일치여부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점수와 진로결정장애요인점수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의 전체 조사대상자 373명을 대상으로 일치 집단과 불일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일치 집단에는 단순히 남성이면서 남성성을 가진 사례수와 여성이면서 여성성을 가진 사례수 뿐 만 아니라, 양성성을 가진 사례수

도 포함하여 집단 구분을 하였다. 일치 집단은 남성이면서 남성성 점수가 88점 이상이고 여성성 점수가 92점 이하인 집단과 여성이면서 여성성 점수 93점 이상이고 남성성 점수가 87점 이하인 집단이다. 불일치 집단은 남성이면서 여성성 점수가 93점 이상이고 남성성 점수가 87점 이하인 집단과 여성이면서 남성성 점수가 88점 이상이고 여성성 점수가 92점 이하인 집단이다.

성 변인과 성역할정체감의 일치 여부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점수를 알아본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었다. 표 5에 의하면, 일치 집단이 불일치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진로태도성숙점수를 보였다( $F(1, 281)=31.58, p<.001$ ). 하위 차원별로 살펴보면, 독립성 차원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하위 차원인 결정성 차원( $F(1, 281)=13.80, p<.001$ ), 목적성 차원( $F(1, 281)=6.64, p<.01$ ), 확신성 차원( $F(1, 281)=18.32, p<.001$ ), 그리고 준비성 차원( $F(1, 281)=118.82, p<.01$ )에서 모두 일

표 5. 성 변인과 성역할정체감 일치 여부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점수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전 체
일치(N=150)	3.29(.78)	3.34(.59)	3.41(.56)	3.96(.44)	3.72(.50)	3.55(.34)
불일치(N=133)	2.99(.77)	3.18(.62)	3.17(.53)	3.79(.50)	3.64(.47)	3.36(.31)
F	13.80***	6.64*	18.32***	11.82**	2.18	31.58***

주. ( ) 안은 표준편차  
\*  $p<.05$  \*\*  $p<.01$  \*\*\*  $p<.001$

표 6. 성 변인과 성역할정체감 일치 여부에 따른 진로결정장애요인점수

	직업정보부족	자기명확성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인식부족	외적장애	전 체
일치(N=150)	2.76(.85)	2.51(.93)	2.59(.85)	1.84(.69)	1.85(.62)	2.31(.53)
불일치(N=133)	2.97(.74)	2.78(.89)	2.91(.82)	2.00(.74)	1.87(.68)	2.51(.55)
F	6.46*	7.81**	13.64***	5.03*	.19	12.78***

주. ( ) 안은 표준편차  
\*  $p<.05$  \*\*  $p<.01$  \*\*\*  $p<.001$

치 집단이 불일치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성 변인과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일치 여부에 따른 진로결정장애요인점수를 알아본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었다.

표 6에 의하면, 일치 집단보다 불일치 집단의 진로결정장애요인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F(1, 281)=12.78, p<.001$ ).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외적장애 요인을 제외한 4가지 요인인 직업정보부족 요인( $F(1, 281)=6.46, p<.05$ ), 자기명확성부족 요인( $F(1, 281)=7.81, p<.01$ ), 우유부단한 성격 요인( $F(1, 281)=13.64, p<.001$ ), 그리고 필요성인식부족 요인( $F(1, 281)=5.03, p<.05$ )에서 불일치 집단이 일치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기존의 개인의 성 변인과 진로발달과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비일관성을 보이는 문제의 원인을 탐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직업심리학 및 진로발달 분야 중에서 진로태도성숙 수준(이기학, 1997; Luzzo, 1995; Peterson, 1993)과 진로미결정의 유형 및 수준(이기학, 2001; 조아미, 2002; Gati, Krausz, & Osipow, 1996)에 대한 남녀 차이와 성역할 정체감 차이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크게 진로발달에 대한 성 변인의 효과가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 원인을 탐색하기 위해 두 가지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성 변인과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수준과 진로결정장애

요인을 분석하였다. 둘째, 성 변인과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일치 여부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수준과 진로결정장애요인 수준을 분석하였다.

첫째, 성별과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태도성숙과 진로결정장애요인 수준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성별과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수준을 살펴보면,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이기학, 1997; Lee, 2001) 진로태도성숙 수준에서의 남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하위 차원별로 살펴보면, 독립성 차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진로태도성숙 수준을 보인 반면에, 준비성 차원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진로태도성숙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역할정체감의 유형에 따라서는 남성성 집단은 양성성 집단과 진로태도성숙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여성성 집단은 양성성 집단보다 낮은 진로태도성숙 수준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미분화 집단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차원의 경우에는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 그리고 독립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확신성 차원에서는 남성성 집단이 양성성 집단이 여성성 집단보다 높은 진로태도성숙 수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준비성과 독립성 차원에서는 성역할정체감의 미분화 유형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반면에, 확신성 차원에서는 남성성 집단과 여성성 집단에서의 진로태도성숙의 차이도 함께 나타난 것으로서, 본 연구의 결과는 남성성이 도구적 특성을 나타내고 여성성이 표현적 특성을 나타냄으로써 성역할정체감에 따라 진로발달과정이 다르고, 그로 인해 진로태도성숙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줄 뿐만 아니라(조아미, 2002; Matsui, 1994), 남성성이 자존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만 아니라 경

쟁적이고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특성인 작용감으로 표현되고 여성성은 타인지향적인 특성인 유대감을 나타내는 특성에 기인한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다(Spencer & Helmreich, 1978; Whitely, 1985). 그러나, 위의 특성은 남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남자의 경우에는 진로태도성숙총점, 확신성, 준비성과 독립성 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독립성을 제외한 모든 차원에서 진로태도성숙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녀 모두 진로태도성숙총점과 확신성 차원에서는 여성성 집단이 양성성 집단보다 낮은 진로태도성숙 수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성역할정체감의 유형 뿐 만 아니라 자신의 생물학적 성특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성별과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결정장애요인을 살펴보면, 진로결정장애요인 수준에서의 남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하위 요인 중 직업정보부족에서는 여학생이, 필요성인식부족에서 남학생이 더 높은 장애요인 수준의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역할정체감 유형에서는 진로결정장애요인 총점과 하위 요인 중 직업정보부족, 자기명확성부족, 그리고 우유부단한 성격에서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성 집단이 양성성 집단보다 높은 진로미결정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유부단한 성격에서는 여성성 집단이 양성성 집단과 남성성 집단보다 높은 진로미결정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성이 독립성과 공격성 등의 도구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여성성이 의존성과 이타성 등의 유대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유계식, 이재창, 1997; Spencer & Helmreich, 1978; Whitely, 1985), 상대적으로 여성성 집단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타인에 대한 의존 및 기대감을 높게 갖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차이와 성역할 정체감의 유형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수준과 진로미결정장애 수준의 차이가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성 변인과 성역할정체감의 유형의 일치여부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수준과 진로미결정장애요인 및 수준을 분석하였다. 진로태도성숙 수준에 있어서는 진로태도성숙 전체 점수와 4개의 하위 차원-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에서 일치 집단이 불일치 집단보다 높은 진로태도성숙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미결정장애 수준에서도 전체점수와 4개의 하위 요인-직업정보부족, 자기명확성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인식부족에서 일치 집단보다 불일치 집단이 높은 수준의 진로미결정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진로를 선택할 때, 미래의 진로가 자신의 생물학적 성 특성과 일치하는 성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Gottfredson (1981)의 타협이론을 지지해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진로발달과 진로결정장애요인의 원인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성 변인 또는 성역할정체감 유형을 개별적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물학적 성 특성과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일치 여부를 동시에 고려해야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성 차이와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성숙과 진로미결정 수준에서의 차이를 보고자 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매우 불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단순히 성차이가 진로태도 및 진로미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성역할정체감 유형을 매개로 영향을 주고 있음

을 강조하고 있다(조아미, 2002).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진로발달에 있어서 성별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 중 어느 것이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가의 여부보다는 성별과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일치와 불일치 여부가 더 중요한 영향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진로상담가들이 진로상담을 할 때에 내담자의 진로발달수준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생물학적 성특성과 성역할정체감의 일치여부를 고려해야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 참고문헌

- 유계식, 이재창 (1997). 대학생의 성공공포와 성취동기 및 성역할정체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1), 259-288.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기학 (2001). 전공모집유형과 진로결정 일관성 여부에 따른 진로미결정 대응 능력 수준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3), 187-197.
- 장휘숙 (1999).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영희 (2002). 흥미 유형 및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진로 의사결정의 타협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진경 (1990). 한국성역할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5, 82-92.
- 조아미 (2000).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과 진로성숙의 결정요인으로서의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교육학 연구*, 38(4), 43-62.
- 조아미 (2002). 청소년의 성별과 성역할정체감이 진로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91-108.
- 한광희, 양은주, 최송미 (2001). 신입생의 진로의식에 대한 태도 연구. *연세상담연구*, 19, 3-18.
- Brown, D., & Brooks, L. (1991). *Career counseling techniques*. Boston: Allyn & Bacon.
- Burnett, J. W., Anderson, W. P., & Heppner, P. P. (1995). Gender roles and self-esteem: A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factor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3, 323-326.
- Burns, L. W. (1994). *Gender differences among correlates of career indeci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Tech University, Lubbock.
- D'ziuban, C. D., Tango, R. A., & Hynes, M. (1994). An assessment of the effect of vocational exploration o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31, 127-136.
- Gati, I. (1993). Career compromis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4), 416-424.
- Gati, I., Houminer, D., & Aviram, T. (1998). career compromises: Framings and their implic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4), 505-514.
- Gati, I., Krausz, M., & Osipow, S. H. (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4), 510-526.
- Gati, I., Osipow, S. H., & Givon, M. (1995). Gender differences in career decision making: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pre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2), 204-216.
-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79.

- Gysbers, N. C., Heppner, M. J., & Johnston, J. A. (1998). *Career counseling: Process, issues, and techniques*. MA: Allyn & Bacon.
- Hackett, G., & Lonborg, S. D. (1993). Career assessment for women: Trends and issu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 197-216.
- Hesketh, B., Elmslie, S., & Kaldor, W. (1990). Career compromise: An alternative account to Gottfredson's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49-56.
- Lee, K. H. (2001). A cross-cultural study of the career maturity of Korean and United States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8*(1), 43-57.
- Leong, S. A. (1993).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replication study with Asian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2), 188-193.
- Luzzo, D. A. (1995). Gender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perceived barriers in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3*, 319-326.
- Matsui, T. (1994). Mechanisms underlying sex differences in career self-efficacy expectation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177-184.
- Peterson, S. (1993).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social academic integration of underprepared college students: Variations based on background characteristic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18*, 77-115.
- Spence, J. T., & Helmreich, R. L. (1978). *Masculinity and femininity: Their psychological dimensions, correlates and antecedent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Tak, J. K., & Lee, K. H. (2003, in press). Development of the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
- Whitely, B. E. (1985). Sex-role orientation and self-esteem: A critical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765-778.

원 고 접 수 일 : 2003. 3. 26  
수정원고접수일 : 2003. 5. 21  
계 재 결 정 일 : 2003. 6. 7

## The Effect of the Accordance of the Gender Characteristics and Sex-Role Identity on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Decision Barriers

Ki-Hak Lee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the accordance of the biological gender characteristics and sex-role identity 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decision barriers of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373 college students (male: 128, female: 245). The sex differences was shown in preparation, independence. And sex-role identity differences was shown in the total score of career attitude maturity, decisiveness, confidence, preparation, independence, the total score of career decision barriers, and indecisiveness. The differences shown in the degree of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decision barriers by the accordance of the biological gender characteristics and sex-role identity was that the accordant group had a significant higher score than the unaccordant group in the total of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the four subfactor s-decisiveness, goal orientation, confidence, and preparation. And the unaccordant group had a significant higher score in the total score of career decision barriers, and the four subfactors-lack of career information, lack of self-clarity, indecisiveness, and lack of necessity recognition than the accordant group. The results suggested that it was necessary to consider the accordance of the biological gender and sex-role identity in explaining the causes of the inconsistency with the previous studies on the effects of the gender variables related with the career development.

*Key Words* : career attitude maturity, career decision barriers, the accordance of gender and sex-role